사무직여성 1990년 겨울호 통권 3호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우리는 주름진 농촌의 주인이지라

김은희 (전남 승주군 주암면 복다리)

비갠 뒤의 무지개가 아름다워서 어린 소녀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한없이 걸어갔지만 잡을 수 없더라는 허무를 그린 이야기가 있다. 녹색과 노랑이 한데 어우러진 황금물결, 빨간 홍시가 주렁주렁 열린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다.「상록수」에서 채영신이 농촌 계몽과 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하면서 죽어가는 줄거리는 모든 읽는 이들에게 감명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왜 그렇게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거리가 먼지.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모내기 수확기를 맞이하여 고달픔 속에서도 힘든 일을 척척 배워가며 억척스러운 촌부로 변해왔다. ‘고생 끝에 낙이라네’ ‘땅은 거짓이 없어’라는 진리를 믿으며 일년 내내 뼈빠지게 농사지어 봤자 남는 게 없다. 그러나 국가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이 병들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외롭고 고달픈, 대가없는 땅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지켜야 하지 않는가. 마을 어귀에 서있는 정자나무만큼 큰마음으로 우뚝 서있는 과묵한 농민들.

농사짓는 사람에게 시집간디요?

그러나 산업화되면서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다. 교육 때문에 시골은 살 곳이 못되고 농민을 위한 문화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영농의 과학화라 하지만 엄청난 기계값으로 생산의 기쁨은 빚더미의 고통으로 짓눌린다. 젊은 사람이라면 열에 아홉은 도시로 이주하니 농촌인력의 노령화, 여성화로 발전은커녕 갈수록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홍길동이가 이사갔네, 내일은 누가 간다네’가 유행어처럼 되었다. 줄어 들어가는 반 친구들의 빈 의자를 보면 동경과 아울러 쓸쓸하다고 아이는 우울해 한다. 날로 심각해지기만 한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니 장관은 우리 지역 출신이 모두 될 거야 두고 보자고. 다 가라고 해. 우리 아이 일등도 하고 꼴등도 하게!”

농고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고 잘생긴 청년을 둔 아주머니가 있는데, 노총각이 된 아들 혼삿길이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한다고 한다. 딸들에게 동생 색시감 좀 구해오라고 성화를 대기도 하고, 유명한 중매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직장이 있어야지’ ‘농사짓는 사람에게 시집 갑디요’하는 소리만 듣고 온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연들이 비일비재하다.

언제부터 떠들던 복지농천이었든가. 그래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겉모습만이라도 농촌은 많은 변화를 했다. 하지만 미래의 농촌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꿈이 있어야 할 텐데 갈수록 제한수매니 이중곡가제 폐지니, 우루과이라운드니,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이니, 삶이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날도깨비는 해방 후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온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수입농산물이 600여가지나 된다니,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의 삶을 헤집어 놓고 있다. 타결전인 요즘에도 매일 50톤짜리 배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배추, 상추까지 들여온다는데, 감치 간 절이듯 농약에 푹 담겨 태평양을 한달 남짓 건너와 밥상 위에 올라오니 수입농산물이 농촌살림뿐 아니라 도시인의 목을 옥죄는 실정이다.

‘ 내 몫까지 하라 ’ 는 시어머니

9월7일 전남대 광장에서 농민대회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마을 마을마다 붙으면서 ‘ UR과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 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라는 공문이 왔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에 참석할 것을 알리고 윗동네 아랫동네 부녀들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섰다.

많은 농민들이 참석하였다. 이 아줌마, 저 어머니가 놀래는 소리를 질렀다. ‘ 웬수 놈의 미국이 자기 나라 살려고 약소국가 죽여 ’ ‘ 학생들이 데모하는 뜻을 이제야 알겠네 ’ 한마디씩 터져나오는 소리들이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그대로 보여줬다. 여성농민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면대책회를 조직하고 잠들어 있는 농촌을 일깨우자는 구호를 외쳤다. 1조에 3명, 3조를 만들어 17개 부락을 방문, UR과 농어촌종합발전대책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약속하였다.

교육 첫날, 집안에서부터 투쟁이었다. 시부모님은 ‘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니냐 ’ 고 걱정하시고, 남편은 ‘ 아이 키워놓고 하라 ’ 고 했다.

“ 아이 키우고 나면 농촌 다 망하는데 그때 가서 대책세우고 운동하면 뭐합니까. 손들고 지나간 버스격이지 ”

아이를 업고 야간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육 결과 반응은 매우 좋아 9월7일 농민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원천봉쇄를 뚫기 위해서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높은 구두를 신고 가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맨날 몸빼만 입고 다닌 여성농민들에게 하이힐이라니. 면에서 100여명의 여성농민들이 원천봉쇄망을 뚫고 투쟁에 참여하였다. 관에서 시부모님께 며느리 잡아두라는 전화가 오고 질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고숙도 있었다. 시부모 눈치를 보며 손에 잡히지 않는 집안일만 하고 있다가 ‘ 농촌 신랑하고 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번만은 어머니 말씀 거역할래요 ’ 하고 대문을 나서자 ‘ 내 몫까지 해라 ’ 하시는 어머니도 있었다.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한다.

마음 편히 농사짓는 세상 만들기

봉고차가 면소재지를 나서기가 무섭게 그들은 봉쇄했다. 그들은 9월6일 오후부터 밤을 새워가며 지키고 있었다. ‘ 결혼식에 부부동반해서 간다는데 한동네 살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소 ’ 등등 별의별 말로 구슬러보아도 그들은 충실한 신하였다. 한 겹을 뚫고 겨우 가다보면 검문소에서 검문하여 차를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역시 작은 힘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된다. 젓가락 하나는 설 수 없지만 여러 개를 묶으면 선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한 서린 농민의 고래 같은 함성과 최루탄 터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한데 어울려 난리였다.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작은 불꽃같은 힘이라도 한데 뭉쳐지면 큰 덩어리가 된다는 진리였다.

국회에서는 닭싸움 그만하고 피땀으로 모은 곡식 전량수매 받아주고 적절한 수매값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부지런한 농민들 앞에 벼이삭처럼 머리 숙이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여성들은 여성농민의 딸들이기에 우리 농산물먹기 대운동을 벌여서 수입농산물이 상품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함께 뭉쳐야 한다. 마음 편하게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농민들이 앞장서서 우리 권리 찾는 목소리 높인다면 기어코 농민들이 잘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 나는 굳게 믿고 있다.